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나?”

새누리당 조명철·이장우 의원, 청문회에서 노골적 지역감정 발언

권은희 증인에 “광주의 경찰이나, 대한민국의 경찰이나” 추궁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19일 26명의 증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문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사실 규명에 주력하기보다는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이날 댓글 사건의 최초 수사 책임자였던 권은희 전 수사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광주의 경찰이나, 대한민국의 경찰이나”고 물었다.

이에 권 전 과장이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나”고 묻자 조 의원은 “대답해봐라”고 다그쳤고 권 전 과장은 “경찰은 누구나 대한민국의 경찰”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그런데 왜 권 증인을 두고 ‘광주의 딸’이라는 말이 붙느냐. 참 이상하지 않느냐. 대답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도 전 국정원 직원이었다가 민주당 총선에 공천을 신청하기



조명철 의원

이장우 의원

도 했던 김상옥씨에게 “고향이 어디세요?”라고 물었다. 김씨는 “광주”라고 답했다. 또 “조선대 부속고등학교 출신 맞느냐”, “000가 고등학교

선배 맞느냐”는 등의 질문을 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새누리당 의원들은 질의하다가 논리가 막히면 그대로 해라. 왜 뿔뿔한 직원에게 지역감정 운운하느냐. 광주 운운하느냐”며 “마치 고속도로에서 싸우다가 갑자기 ‘너 나이 몇 살이냐고 따지는 것처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조명철 의원의 질문은) 출신지역을 강조해서 권은희 증인의 증언을 지역감정으로 몰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출신지역을 얘기해서 권은희 증인의 발언 자체를 국민이 곡해(曲解)하도록 하려는 알박한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증인으로 출석한 권은희 전 수사경찰서 수사과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도 신공항 추진

항공수요조사 요구 ... 광주시·전남도 측각

전북도가 새만금 개발에 따른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신공항 건설을 추진해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한 광주시와 전남도가 바깥 긴장하고 있다.

군산공항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공항이 전북에 들어서면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이용객이 크게 줄 수밖에 없는 때문이다. 또 중국과 동남아 등지를 겨냥한 전북 공항이 문을 열면 최근 중국과 필리핀 등지로 노선을 확대하고 있는 무안공항의 국제선 기능도 크게 떨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19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2016~2020년)’을 수립할 계획인 가운데 전북도가 군산공항 확장을 위한 항공수요 증가 추이와 시설확충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동남권신공항과 제주신공항 등 새로운 공항 건설을 위한 수요 조사에 전북을 포함해 달라는 것이다.

경관권과 전담권에서 각 3개의 공항이 있는 반면, 전북에는 군산공항밖에 없어 신공항 건설에 배려가 필요하다는 게 전북도의 논리다.

특히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된 새만금 지역과 전북혁신도시 개발로 항공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공항 건설에 대한 전북 지역 내 요구도 커지고 있다.

전북도는 용역을 통해 향후 10년 이내에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과 연간 70~100만명 이상의 항공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무안공항이 광주와 전남·북, 논산까지의 항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건설됐기 때문에 전북에 새로운 공항이 들어서면 수요가 분산될 수밖에 없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안공항 타당성 조사 당시, 호남과 논산을 포함해 항공수요를 550만명으로 설정했다”면서 “전북에 추가 공항이 들어서면 광주·무안공항과 전북 공항이 모두 자멸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산공항과 무안공항의 직선 거리가 100km 남짓이고, KTX가 완전 개통되면 무안공항~익산 구간이 30분대로 단축되기 때문에 새로운 공항 건설은 낭비라는 것이다.

또 강원도와 경북권에 각 4개,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두환 처남 이창석 영장실질심사

檢 “다운계약서로 조세포탈”

경기도 오산 땅을 매각해 그 대금 중 일부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녀들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의 구속 여부가 19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법원 319호 법정에서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씨는 영장심사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한 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남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경기도 오산 땅 일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130억원 상당의 양도세 및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난 14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씨 측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핵심 혐의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매매 계약에 따른 거래”라며 “최종 계약 이행에 이르기까지 매매 금액·조건이 여러 차례 바뀐 ‘변경계약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1984년부터 소유한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대 땅 82만여㎡(25만여평)를 2006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억원대에 매각했다. 그는 부지 중 40만여㎡(12만평)는 재용씨에게 매각하는 것처

럼 꾸며 불법 증여했고 재용씨는 시가 수백억원 상당의 이 부지를 약 28억원에 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는 재용씨에게 넘기고 남은 땅 42만여㎡(13만여평)는 부동산개발업체인 뉴플루토스카빌의 대표 박정수씨가 대주주인 엔코엔지니어링에 585억원에 매각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으며 전씨 측과 이씨 사이에 부동산 매각 대금을 나누기로 한 문서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오산 땅이 사실상 전씨 측 재산이며 매각 대금이 전씨 자녀들에게 유입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오산 땅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

WP, 전두환 추징금 환수 소개 ... 5·18 등 상제 보도

“완전한 정의 추구”

최근 검찰이 진행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남 추징금 환수를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현지시간) 소개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한국, 마지막 독재자의 재산을 추적하다’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전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 한국은 민주화됐지만 당국은 완전한 민주화를 위해서는 마지막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이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완전한 정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돼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미남 추징금 환수에 나선 것은 이런 명분에서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전 전 대통령을 ‘마지막 독재자’(final dictator)라고 표현한 뒤 일반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그에 대한 분노는 한국의 세대교체를 반영한다면서 과거 억압받던 많은 이가 지금 권력을 쥐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념의 굴이 깊은 한국이지만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노력에 대해서는 거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가 1980년대 경제성장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열망에 대한 억압과 기업으로부터의 통치자금 수수 등으로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전 전 대통령 외에도 한국에는 부패한 지도자들이 있었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엄청난 뇌물을 받았지만 많은 한국 국민은 전 전 대통령과는 다르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의 딸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고 전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전 전 대통령은 군대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면서 “한국에서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하나투어
www.HanaTour.com

상담 및 예약: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모든나라여행사 [전남대정문]	062)521-2100
윤기주하나투어 [신세계 이마트 1층]	062)360-0166
세정투어여행사 [삼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464-8000
남해여행사 [목포 한사랑방원]	061)287-4100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올 여름휴가는 하나투어 광주/전남 전용 상품으로 떠나주세요!

처음 만나는 자유, 란주

안천출발 8월 16, 20, 24, 28일 / 9월 1, 5, 9, 13, 17, 21, 25, 29일

장가계 직항 전세기
자연이 빚어낸 최고의 절경

무인출발 10월 8일(화)~11월 12일(화) 총11회
매주 화요일(3박4일)/금요일(4박5일)

부산출발 8/30일 카멜리아 특가찬스!

벤티 후지칸 호텔 북큐스 3일
269,000원 ~ 199,000원 ~

출발일 8월30일(금)
*별포함 사항: 선내식별, 기사/가이드(2명), 유류세(2명)
*특전: 아소스/북큐스/유류인 관망

특급 힐튼/아소스도만 북큐스 4일
429,000원 ~ 399,000원 ~

출발일 8월30일(금)
*별포함 사항: 기사/가이드(2명), 유류세(2명)
*특전: 선내식별, 아소스/북큐스/유류인 관망

세계 3대아열 나카사키&아소프 4일
419,000원 ~ 369,000원 ~

출발일 8월30일(금)
*별포함 사항: 선내식별, 기사/가이드(2명), 유류세(2명)
*특전: 선내식별, 아소스/북큐스/유류인 관망

골프 챌린지 투어(국내)

18H 강원도골프 1일
출발일 9월 6일(금) 145,000원 ~

03H 강원도골프 2일
출발일 9월 6일(금) 369,000원 ~

태산 등반 대회

[위등페리] 태산/노산 트레킹 5일
출발일 9월 5일(목) 269,000원 ~

[대한항공] 태산/노산 트레킹 4일
출발일 9월 5일(목) 499,000원 ~

신크루즈 [CWP841-MUA]
◆노소광◆
난주(란주)/돈황/악고굴 5일
999,000원 ~

누들로드 [CWP871-MU]
◆바람의 나라◆
난주(란주)/황하섬/사파두사막 5일
599,000원 ~

특가 누들로드 [CWP871-MUE]
◆노소광◆
난주(란주)/황하섬/사파두사막 5일
499,000원 ~

리틀리브 [CWP870-MUB]
◆노소광◆
난주(란주)/서녕 5일
999,000원 ~

장가계/원가계 4일
●원문산 케이불카'특신2회'발바사지●
899,000원 ~

장가계/원가계 4일
●원문산/귀곡진도'특신2회'전신바사지●
999,000원 ~

장가계/원가계 5일
●황석재'천문산케이불카'특신2회'발바사지●
949,000원 ~

장가계/원가계 5일
●황석재'천문산/귀곡진도'특신2회'바사지●
1,049,000원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료,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세는 상기상품 가격의 별도차별되며 항공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선택권비 선택관광경비, 안내원비용등 모든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 현지에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출발일/출발상품에 따라 선택권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중로구 광명동 1번지 ㈜하나투어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 제26004-1993-6(종로구청) ■관광블랜드인 Tel 1577-1233 ■22억1천만원 보증보험 가입 ■숙소:2급호텔이상 ■교통편:항공/버스/페리 ■항공사별로 유류할증료 인상금액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